

##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이 호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Girlish Fashion as a Romanticism of the 21st Century

Hyo-Jin Lee

Professor, Major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3. 8. 18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irlish fashion as a contemporary as well as Romanticism of the 21st century.

The background of girlish fashion is regarded as a hot blast of restoration and a appearance of kidults, such characteristics of these factors, that is, the moderns's longing for the memory of old days and kidult's concerns for the dream of their childhood,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Romanticism. So the plasticity of girlish fashion was analyzed as a results:

- 1) This plasticity named Recurrent Romanticism as 21st New Look, especially the plasticity represented in a princess style fashion. The princess style fashion of girlish fashion means not only a expression of the moderns's self-confidence but also nostalgia toward old days.
- 2) Sweet Romanticism developed into angel style fashion, which the style expressed the moderate cuteness with clothing construction and detail etc and the innocence with white color.
- 3) The plasticity of girlish fashion called a feast of color named Fantastic Romanticism. Fantastic Romanticism of girlish fashion means not only a expression of a lovely girlie's image but also hope toward 21st century.

Throughout the study, Romanticism as a cultural code of 21st century was considered to reflected in the whole livelihood as well as contemporary fashion, especially, girlish fashion.

Key words: girlish fashion(걸리쉬패션), recurrent romanticism(회귀적 로맨티시즘),  
sweet romanticism(스위트 로맨티시즘), fantastic romanticism(환상적 로맨티시즘)

## I. 서론

패션 트렌드에 있어서 192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시대가 '복고풍(retro)'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며 때로는 어느 시대, 어느 스타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의상들이 복고풍이라고 쉽게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새 천년 이후 의복의 종류나 성별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패션에 복고풍 디자인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인터넷 가상세계에 몰입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의 가치를 숫자나 돈으로 따지고 개인주의 팽배로 세상은 더욱 파괴적이고 각박해지고 있다. 즉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정신이라든가 마음이라는 따뜻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 중요해지면서 세기말까지 팽배해 있던 차갑고 냉정하며, 절제된 패션 트렌드는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좀 더 인간미 넘치던 과거의 것들에서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아이디어는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로맨틱시즘이란 트렌드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 패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새 천년 여성복 패션에서 '로맨틱'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감성과 표현 방법을 꾸미는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어 왔다. 즉 옛스러운 이미지를 현대적 복고풍으로 해석한 로맨틱시즘이 주목을 받으면서 순수한 소녀적 감성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재창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패션에서의 걸리쉬(girlish) 패션을 연구해 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패션에 있어서 로맨틱시즘의 장(場)으로써 나타난 걸리쉬 패션을 연구해 보는 것은 현대인의 삶의 의식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션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에 의한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하였으며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고찰·분석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2000년 이후 현대까지로 그 이유는 새 천년 이후 패션 트렌드는 인간적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다 예술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로맨틱시즘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패션 코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II. 걸리쉬 패션의 태동 배경

### 1. 복고 열풍

세기말에 이어서 21세기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각 분야가 '복고 열풍'에 사로잡혔다. 영화, 음반, 광고 등 복고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과거의 것들을 리메이크하고 있다. 패션 분야 역시 옛 추억들을 21세기 로맨틱시즘으로 재창조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 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복고 현상인가. 이것은 현대 문명의 진보와 기계화 그리고 기술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이 반성감과 함께 여유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빠르고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인들이기에 역설적으로 한 박자 템포를 늦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복고 열풍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또한 복고 현상은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파괴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삼 옛것을 찾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며 단순한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sup> 따라서 현대인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낭만적 아름다움 등에 목말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써 새 천년에 로맨틱시즘의 재등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로맨틱에 대한 향수는 인간이 추구하는 순수한 감정이고 로맨틱 패션이 야말로 물질 문명에 지친 사람들의 가슴에 순수한 사랑의 느낌을 되살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기말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에 대한 향수와 회고를 대변하는 로맨틱시즘이 복고풍 패션의 큰 흐름

름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이러한 ‘21세기 복고 열풍’은 패션에서 로맨틱 스타일로 당당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 로망티시즘이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전 유럽에서 전개된 정신운동으로 문예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조형예술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sup>3)</sup>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주관적, 개성적, 상징적, 신비적, 초자연적 특성을 보이는 문학예술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총괄적으로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의 해방을 주장하며 상상과 무한한 것을 동경하는 주관적·감정적인 태도가 그 특징이며 정신생활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sup>4)</sup> 즉 로망티시즘은 사물에 대한 전통적 표현과 지각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감성과 상상의 영역을 풍요롭게 하면서 전개되어 나갔다.<sup>5)</sup>

당시 로망티시즘이 발생한 시대적 원인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은 혁명 자체에 대한 염증과 환멸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시공을 초월한 이상을 찾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 동경의 나라를 펼쳤다.<sup>6)</sup> 즉 이것은 근대화, 도시화,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부르주아 계급의 탄생이 로망티시즘 예술 운동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완고한 고전주의에 대항하여 인간 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주장한 문예사상을 일컫던 로망티시즘 경향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회고를 그 특징으로 한다. 19세기말 패션의 로망티시즘에 있어서는 화려한 로코코(Rococo) 스타일이 복고된 것<sup>7)</sup>으로 리본, 러플, 레이스, 장식적인 소재 등이 사용되거나 여성적인 곡선과 디테일의 감성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즉 로코코 예술양식이 친밀한 삶의 영역을 치장하는 예술로써 지친 사회의 모든 향락에 자극받은 감각을 위한 도피처였다<sup>8)</sup>는 데서 그 로망티시즘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1세기 패션에 표현된 로망티시즘은 과거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단순히 과장된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위있는 여성스러움이 혼합된 스타일이다. 단순한 디자인에

한 부분만 강조하는 디테일을 적용하거나 핑크, 레드 같은 로맨틱한 컬러뿐만 아니라 화이트, 블랙, 베이지 등 차분한 컬러에 에스닉한 액세서리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 등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러플과 프릴, 레이스 장식, 복고적인 코사지, 프린트 등의 디테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로맨틱 스타일의 패션 코드이다. 이것은 복고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디테일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난다<sup>9)</sup>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재인식할 수 있다.

즉 더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세기말을 거쳐 21세기로 오면서 패션은 복고풍의 부활과 함께 어둠은 밝음으로 차분함은 화려함으로 그 조형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로망티시즘의 한 경향인 걸리쉬 패션이 폭넓은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2. 키덜트족의 등장

‘키드(kid)’와 ‘애덜트(adult)’가 합성된 ‘키덜트(kidult)’는 세일러문이나 마시마로 캐릭터에 탐닉하고 전자게임을 즐기는 등 아동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빗댄 신조어다.<sup>10)</sup> 아동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인들로 풀이되는 키덜트는 성인이지만 전통적으로 어린이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문화와 상품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21세기 문화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이다.

키덜트의 등장 배경은 무엇보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짝 짜여진 일상을 거부하고 환상의 세계를 동경하는 성인들의 일탈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마음 한 구석에 어린이의 맑고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를 유지하면 정서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추구하는 일부 어른들의 심리가 디지털 문화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한다.<sup>11)12)13)</sup> 아주대 사회학과 김병관 교수<sup>14)</sup>는 ‘드러내놓고 즐기는 문화’와의 합일도 무시할 수 없는 키덜트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들의 시선보다도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키덜트 문화가 떠

오르는데 한 몫을 한다고 설명한다.

키덜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치할 정도로 친진 난만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사회가 개방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었으나 개방적 사회로 바뀌면서 50대도 '마음은 10대'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15)</sup>

최근 키덜트가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영화, 소설, 패션, 애니메이션, 광고 등 대중 문화 전반에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키덜트 확산에 대해 오리콤 브랜드 전략 연구소 관계자는 '동심이 깃든 상품을 소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미와 유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16)</sup> 즉 구매력이 없는 아동층이나 고연령층에 비해 막강한 소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키덜트는 각 기업의 마케팅 타겟 1순위로 급부상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성인의 이성을 동시에 지닌 우리 세대의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서 키덜트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빛깔을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복고풍의 인기도 함께 부추기고 있다.

중년 여성골퍼들이 '디즈니 골프', 'MU 스포츠', '블랙엔 화이트', '먼싱웨어'처럼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캐릭터 골프웨어를 즐겨입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sup>17)</sup> <그림 II-①> 모피 소재의 대형 꽃 장식을 머



<그림 II-①> M사의 골프웨어, 2001.

리에 덧붙인 다소 유치한 머리 장식도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이며 벵어리장갑이나 모자 끝에 달린 술 등 귀여운 방한 소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로 키덜트 스타일은 현대 패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Christian Dior의 작품 <그림 II-②>에서는 특유의 상상력과 재치로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문화로부터 영감을 표현한 디자인이다. John Galliano의 작품 <그림 II-③>의 경우에서도 다양한 색상과 이국적인 요소들이 혼합된 서정적이고 유희적인 디자인에서 에너지 넘치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서도 소녀들의 머리에나 어울릴 법한 알록달록한 머리장식이나 의상의 장식소품,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붙여서 표현하는 앙증맞은 코사지, 리본, 아플리케 등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J C de Castelbajac의 작품인 <그림 II-④>의 경우는 낙서화가인 Keith Haring의 작품이 프린트된 상의와 미키마우스가 새겨진 스커트 디자인이나 Moschino cheap & chic의 작품 <그림 II-⑤>의 경우에서처럼 유아적 취향의 패션 디자인들도 키덜트족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명품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키티 손수건과 거울이 든 키티 가방을 들고 키티 핸들커버가 달린 차를 운전하는 여성이나 곰돌이 푸(pooh)가 그려진 티셔츠에 곰돌이 푸 컵에 커피를 마시는 성인 남자처럼 고전적 캐릭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키덜트족이 넘쳐나고 있다.

즉 메마른 현실과 대비되는 환상이나 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등장한 키덜트는 스



<그림 II-②> Christian Dior, 2001 S/S



<그림 II-③> Jean C de Castelbajac 2003 S/S



<그림 II-④> John Galliano 2000/01 AW    <그림 II-⑤> Moschino-cheap & chic 01/02 AW

타일에 있어서 로맨틱한 감성으로 표출됨으로써 걸리쉬 패션의 부각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 홍보용 브로슈어에서나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걸리쉬 패션과 소품이 최근의 패션 트렌드를 파고들고 있다.

### III. 걸리쉬 패션의 내적 의미 분석

패션에서의 로맨틱시즘은 여성스런 분위기로써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소녀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부드러운 질감에 꽃무늬와 민속풍의 기하학적 무늬가 표현되고 색상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산뜻한 색상과 감미로운 자연색조가 로맨틱한 이미지를 담고있다. 이러한 디자인에 프릴이나 레이스 장식 및 부드러운 감각으로 표현된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걸리쉬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로맨틱시즘 패션으로 나타난 걸리쉬 패션을 회귀적 로맨틱시즘(Recurrent Romanticism), 스위트 로맨틱시즘(Sweet Romanticism), 환상적 로맨틱시즘(Fantastic Romanticism)으로 분류해서 고찰·분석하였다.

### 1. 회귀적 로맨틱시즘 (Recurrent Romanticism)

2000/2001년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제시한 트렌드 중에는 감성여행이라는 테마가 있었다. 즉 새 천년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과거 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이들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인간의 원류를 생각나게 하는 인간 감성의 역사는 우리를 현대 문명 속에 향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현대인들의 기억, 회상, 추억 속의 빛바랜 낭만이 패션을 통해서 다양한 로맨틱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 중 현대적 로맨틱시즘의 하나인 걸리쉬 패션으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는 민속의상 스타일이나 수공예 장식 등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가미되어 표현된 것을 회귀적 로맨틱시즘으로 고찰하였다. 이것은 Moschino-cheap & chic의 작품인 <그림 III-1-①>의 경우처럼 순수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수공예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액세서리,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소녀시절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즉 집시풍의 스커트와 디테일 등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일뿐만 아니라 특히 만화적인 얼굴 등에서 경쾌한 소녀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패션 디자인에서 전반적인 실루엣의 변화로 더욱 두드러지며 이것은 디테일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1-②>는 Stellar Cadente의 패션 작품으로 Stellar는 어린 소녀가 옷장을 열고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전개하였다.<sup>19)</sup> 바로 이 작품에서는 물결치는 듯한 러플,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프



<그림 III-1-①> Moschino-cheap & chic 01/02 AW

릴, 스티치로 재미를 가미 시키는 스모킹, 장난스럽고 귀여운 리본 등의 장식들에서 로맨틱시즘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디테일은 쉬폰, 쉬어, 레이스, 코튼이나 실크 등에 어우러져 소녀적인 여성미가 강조되며,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테일로 로맨틱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실루엣을 한층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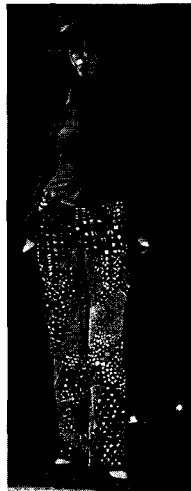
Vivienne Westwood의 작품 <그림 III-1-③>이나 Christian Lacroix의 작품 <그림 III-1-④>의 경우, 귀여운 느낌의 전원풍 블라우스에서 섬세한 핸드크래프트 제품과 같은 '손맛'이 담겨있고 색다른 분위기의 디자인과 빈티지 데님 소재 등으로 자연스럽게 소녀적인 감성을 보여준다. Westwood의 작품을 통해서도 형태와 비례가 자유롭게 신체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적 실루엣과 다양하게 사용된 러플, 셔링 등의 주름은 의상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했다. 즉 옛것



<그림 III-1-②> Stella Cadente 2002 S/S



<그림 III-1-③> Vivienne Westwood 2002 S/S



<그림 III-1-④> Christian Lacroix 01/02 A/W

을 느끼게 하는 감각이 패션을 통하여 경쾌함을 불어넣으면서 로맨틱함을 느끼게 한다.

Gaultier의 작품인 <그림 III-1-⑤>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밝은 색상과 꽃발을 옷에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꽃무늬들, 하늘하늘한 소재의 스커트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넘실거린다. 스커트의 모양도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비대칭형이 많으며 여기에서는 공주풍(風)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공주병'<sup>20)</sup>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나타난 공주풍 패션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복고풍이 유행하면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스타일의 유행은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섹시함보다는 청순한 이미지를 선호함으로써 나타나는 복고풍이다.<sup>22)</sup>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주풍 패션을 2000년 이후 여성적이고 우아한 50년대 복고풍이 '21세기 뉴 룩'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sup>23)</sup>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즐겨입었던 어깨가 좁은 세미 A라인 등으로 고급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것이 대표적인 공주풍 패션이다.<sup>24)</sup> 공주풍 패션의 특징은 꽃무늬, 프릴 장식, 세미 A라인 코트, 털을 짧게 깎은 쉬어드(sheared) 밉크<sup>25)</sup>, 토끼 같은 모피 패션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즉 추억을 느끼게 하는 패션으로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크



<그림 III-1-⑤> Jean Paul Gaultier 2001 S/S

고 작은 꽃무늬나 코사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표적 디테일인 프릴이나 러플이 달린 블라우스나 퍼프 소매 블라우스나 리본 테이프 장식의 치마, 가슴 부분은 꽃 장식으로 풍성하고 허리부분은 잘록하게 좁아지는 원피스 등 이러한 패션은 발랄하고 귀엽고 우아한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볼륨감과 입체감을 느

끼게 한다. 영국 디자이너인 Pablo Flank과 Hayzel Robinson이 이끌고 있는 브랜드인 House of Jazz의 작품 <그림 III-1-⑥>이나 Lawrence Steele의 작품인 <그림 III-1-⑦>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또한 옷뿐만 아니라 패션 소품, 잠옷 등에도 공주풍이 새 천년 이후 더욱 유행되고 있으며 인데 꽃무늬 가방이나 보석을 눈에 띄게 박은 샌들이나 꽃 모양의 머리 리본 등 공주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소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문영희의 작품인 <그림 III-1-⑧>의 경우에서처럼 국내에서도 걸리쉬 패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것은 만화속에서 본 듯한 감쪽한 소녀같은 스타일로 몸에 달라붙는 앙증맞은 탑류나 핫팬츠, 골반바지, 티어드 스커트 등의 아이템으로 그 분위기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⑥>  
House of Jazz  
2003/04 A/W

공주풍 패션은 기성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존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젊은 세대들이 매스미디어와 경제의 일부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사회적 분위기도 하나의 근원이 되었다. 즉 대중들은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표현된 무대의상에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표현에 소극적이지 않은 현대인들은 대리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공주로 재탄생시켰다.<sup>26)</sup>

회귀적 로맨티시즘은 빛바랜 추억과 기억 속의 회상을 걸리쉬 패션을 통해서 과거의 서양복식과 민속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응용하거나 역사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현대 패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 즉 여성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주풍 패션은 걸리쉬 패션에서도 섹시하고 대담하게 표현됨으로써 현대 여성의 복잡한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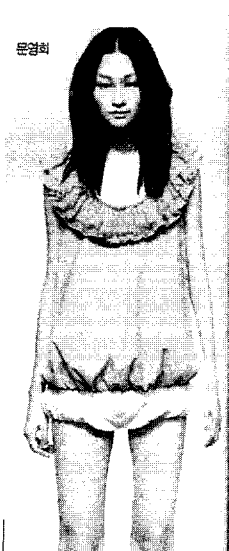
## 2. 스위트 로맨티시즘 (Sweet Romanticism)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외 컬렉션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검정색상의 퇴조와 흰색상의 전면 부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순수와 평화의 상징인 흰색이 중심색상으로 패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sup>27)</sup> 로맨틱한 패션 경향과 흰색상의 대유행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요정들의 의상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서 삼성연구소 서정미 차장은 ‘팬티지한 영화와 로맨틱한 패션은 모두 복고적 트렌드의 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즉 팬티지의 강세나 여성성을 극대화해 마치 여신 같은 느낌을 주는 패션은 모두 21세기식으로 변형된 복고풍이라는 견해이다.<sup>28)</sup>

스위트 로맨티시즘은 주로 유행과 관계없이 암전하고 청순한 여학생의 이미지로 스포티한 것보다는 전원적이면서 도시적 감각이 겸비된 순수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최해주<sup>29)</sup>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순수성을 패션에서는 인공적이며 기계화된 환경을 거부하고 옛날의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를 표현하여 자연성과 인간성 회복을 꾀하며 동물, 식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했



<그림 III-1-⑦> Lawrence Steele 01/02 A/W



<그림 III-1-⑧> 문영희 2000.

다. 걸리쉬 패션의 순수미의 조형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달콤한(sweet) 소녀적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과 다양한 패턴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젊은층에게는 '천사풍 패션'으로 발전했고 하늘하늘한 시폰과 레이스 그리고 흰색상으로 순수한 천사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위트 로맨틱 시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천사풍 패션은 의복의 구성이나 디테일의 응용에 있어서 절제된 귀여움을 살리는 게 특징으로 러플과 프릴, 개더, 셔링 등의 주름 장식은 모든 걸리쉬 패션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을 가지는 디테일로 응용되었다.

목이나 허리, 소매 부분에 고무줄로 주름을 잡은 블라우스나 소매 대신 커다란 프릴을 달아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게 하는 탑 등이 천사풍 패션의 대표적 아이템이다. 특히 Stella Cadente의 작품 <그림 III-2-①>의 경우에서처럼 날개 같은 프릴과 레이스, 하늘거리는 소재나 얇고 비치는 시스루(see-through) 소재, 그리고 주로 흰 색상으로



<그림 III-2-①> Stella Cadente 2002 S/S

로 표현된 걸리쉬 패션은 새 천년 이후 크게 부각되었다. Victor Bellish의 작품인 <그림 III-2-②>의 경우도, 더욱이 흰색의 하늘하늘한 소재에 레이스 단에 날아갈 듯 펄럭이는 프릴 장식을 한 '천사풍 패션'으로 어깨 솔기에 아예 작은 날개 모양의 장식을 단 블라우스도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인 Coccapani의 작품인 <그림 III-2-③>의 경우처럼 아예 작은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다니기까지도 하며 이경원의 작품인 <그림 III-2-④>의 경우에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퍼프 소매에 덧댄 변형된 또 하나의 커다란 소매 형태를 달아 마치 천사의 날개가 펄럭이듯이 보이게 하기도 한다. 걸리쉬 패션에서 순수미의 조형성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개체를 모방하여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귀결지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개체가 천사로서 천사의 날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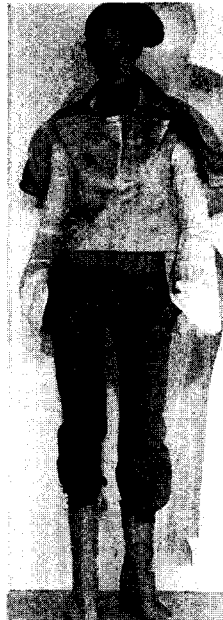
<그림 III-2-②> Victor Bellish 01/02 A/W



<그림 III-2-③> Coccapani 2003/04 A/W



<그림 III-2-④> 이경원 2000.



<그림 III-2-⑤> Masaki Mastushima 00/01 A/W

오브제 형태로 여성복 디자인으로 반영되었다. Masaki Mastushima의 작품 <그림 III-2-⑤>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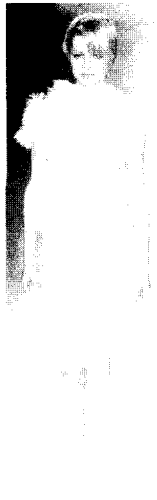
기하학적으로 재단된 케이프 형태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현대로 올수록 패션이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려주는 역할이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현대인들은 패션을 통하여 개성을 표현함에 주저하지 않음을 이러한 천사풍 패션에서도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Fendi의 작품인 <그림 III-2-⑥>에서나 Streness의 작품 <그림 III-2-⑦>의 경우에서도 순수하고 귀여운 느낌을 최대한 살린 로맨틱한 순수 이미지가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Streness의 작품에서는 오브제로 활용된 모피 소재는 날개의 실루엣으로 귀엽고 순수한 감각을 부여해 준다.



<그림 III-2-⑥> Fendi  
01/02 AW



<그림 III-2-⑦>  
Streness 01/02 AW

시리도록 눈부신 형광빛 흰색과 흰색기가 많이 들어간 블루나 핑크계열의 색상과 하늘거리는 시폰이나 레이스 소재로 깨끗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순수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걸리쉬 패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 Junko Shimida의 작품인 <그림 III-2-⑧>의 경우에는 둥근 목선 주위부터 장식 테이프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나타나는 앙증스러운 주름과 툄립 봉오리처럼 봉긋 솟은 귀여운 주름 소매와 허리 부위를 둥글게 감싸는 밀단 주

름이 사랑스러운 순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걸리쉬 패션의 하나의 이미지인 천사풍 패션은 일반적 관념 속에 있는 신비에 휩싸인 어린 천사 이미지라기보다는 장난기 가득한 아기 천사의 순진한 모습으로 천진하고 앙증맞게 표현되고 있다. 바로 이것은 걸리쉬 패션에 반영된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천사의 비호아래 잠시라도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대중의 심리가 표출된 것이다. 더욱이 세기말의 어두운 이미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심과 사랑, 순수 등 인간미 넘치고 때로는 유치하기도 한 감성을 자극하는 낭만풍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⑧> Junko Shimida 2003/04 AW

패션계에서는 최근 고급과 저급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단순 명쾌하면서도 대중적인 관심과 취향을 드러내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을 초월해서 감각적이고 위트가 섞인 표현은 패션의 심각함이나 무거움을 덜어주는 즐거움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위트 로맨틱시즘으로 표현된 천사풍 패션은 특히 오브제와 같은 소재 활용을 통한 여유있고 순수한 조형성으로 표현되었다.

### 3. 환상적 로맨틱시즘

#### (Fantastic Romantic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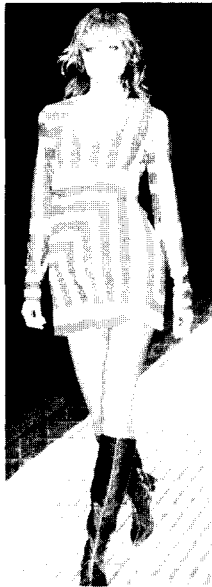
삼성패션 연구소에 의한 2000/2001년 F/W여성복 트렌드에서 21세기 패션은 컬러로 시작된다<sup>30)</sup>고 하였는데, 현대 생활 속의 수많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함과 차가움의 감성을 동시에 지니며 정제된 모던한 패션을 위한 색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새 천년 세계 패션계를 주도하는 파리, 뉴욕, 밀라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컬렉션에서 충천연색의 밝

은 색상들이 새로운 세기의 가장 강력한 패션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되는 2000년 춘하 트렌드는 '색채 향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패션에 있어서 색상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sup>31)</sup>

걸리쉬 패션에서 환상적 로맨티시즘은 주로 디자인이나 색상에서 표현되었으며 색상의 배합에 중요한 초점을 두어, 공상적인 꿈과 같은 세계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선명하지만 비비드 컬러보다는 강렬하지 않고, 파스텔에 가까우면서 투명감이 강조된 '캔디 컬러(candy colour)'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어린 시절 즐기던 사탕 같은 추억의 색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녀적 감성이 충분히 표현된 Issey Miyake의 작품인 <그림 III-3-①>의 경우나 Versus의 작품인 <그림 III-3-②>에서의 경우처럼 또한 캔디 컬러는 염색가공은 물론 소재 자체에까지 적용돼 여러가지 색이 혼합 직조되고 있으며 아주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그림 III-3-①> Issey Miyake 00/01 AW



<그림 III-3-②> Versus 01/02 AW

레인보우 컬러(rainbow colour), 피크닉 컬러(picnic colour) 등으로 불리는 이 화려하고 대담한 색상들은

여성복을 대표하는 트렌드 자체가 바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새 천년의 주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na Molinari의 작품 <그림 III-3-③>과 Carlo Ponti의 작품 <그림 III-3-④>, 그리고 Celine의 작품 <그림 III-3-⑤>의 경우에서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과 함께 진분홍 보라 연두 오렌지 등 스펙트럼에서 분출되는 빛을 연상시키는 이런 색상들은 크레파스를 색색이 칠해놓은 듯 창조력으로 가득차 있다. 또한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에서 자유로움과 관능미를 더해 줄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소녀적 감성이 표출되고 있다.



<그림 III-3-③> Anna Molinari 01/02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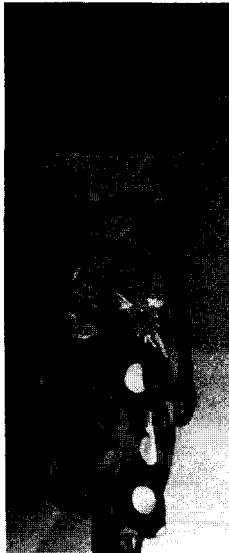


<그림 III-3-④> Carlo Ponti 2001 S/S

감쪽하고 귀여운 디자인과 따뜻한 색감 등이 마음은 항상 소녀와 같은 '동심(童心)'을 자극하는 걸리쉬 패션이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은 '동심(冬心)'을 녹이고 있다. 최대한 예쁘고 옛되게 보이기 위하여 벨벳, 인조털 등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분홍, 아이보리, 올리브 그린, 와인색 등 밝고 화사한 색을 주조로 한다.<sup>32)</sup> Bernhart Wilhelm의 작품 <그림 III-3-⑥>은 아동복을 연상시키는 케이프와 다채로운 색상의 문양 등이 시선을 끄는 디자인이다. 이

작품과 함께 Byblos의 작품 <그림 III-3-⑦>의 경우 모두 핑크, 오렌지, 블루, 그린 등의 건강한 느낌의 피크닉 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뉴욕 테러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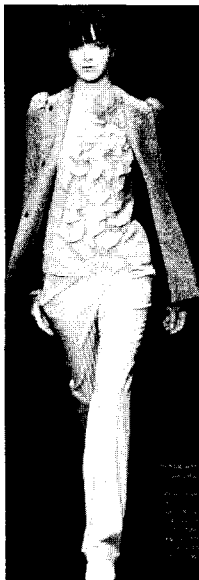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사랑과 희망을 증시하는 경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기자기한 디테일과 화사한 무지개 빛 색상들이 걸리쉬 패션을 통해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림 III-3-⑤> Celine  
2002 S/S



<그림 III-3-⑥>  
Bernhart Wilhelm 2003



<그림 III-3-⑦>  
Byblos 01/02 AW



<그림 III-3-⑧>  
Dolce & Gabanna  
01/02 AW

Dolce & Gabanna의 작품 <그림 III-3-⑧>의 경우 봄빛을 닮은 핑크는 쉽게 소화하기 힘든 색이지만, 아름다움과 소녀의 청순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색상이다. 과거 스타일로의 복고는 유행 색상의 범위 확대와 프린트 패턴의 색상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요인으로, 이것은 어린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심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소재와 스타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이 컬러풀한 색상과 귀여운 느낌을 주는 장식 등과 어우러져 전개되었다.

걸리쉬 패션의 환상적 로맨티시즘 조형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캔디 컬러는 자유로운 감각을 거침없이 적용하고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즐기는 젊고 풍족한 세대의 취향과 아주 잘 부합된다. 즉 세기말 어둠에 대한 반전이자 21세기에 대한 희망으로 '빛의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한 유행 컬러로써의 캔디 컬러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새 천년 패션의 메시지를 담은 걸리쉬 패션에 중요한 비중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1세기 세계적 컬렉션에 레인보우 색상부터 네온 색상까지 온 세상의 모든 색상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다채롭게 연출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계절의 구별이 없고(seasonless) 성별의 구별이 없는(sexless)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적이고 화사한 이미지의 파스텔 색상이나 눈부실 만큼 선명한 색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21세기 패션은 색의 향연, 빛과 희망이라는 감성을 현대적 로맨티시즘으로 표출하였다. 즉 즐겁고 달콤한 색상에서 우리나라는 감성은 결국 삶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만들뿐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이든 하이 패션이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패션계의 열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 IV. 결 론

새 천년 여성복 패션에서 '로맨틱'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감성과 표현

방법을 꾸미는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어 왔다. 즉 옛스러운 이미지를 현대적 복고풍으로 해석한 로맨틱시즘이 주목을 받으면서 순수한 소녀적 감성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재창조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에 있어서 로맨틱시즘의 장(場)으로써 나타난 걸리쉬 패션을 연구해 보는 것은 현대인의 삶의 의식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션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걸리쉬 패션의 태동배경으로는 문화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고 열풍'과 '키덜트족의 등장'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현대과학과 기술은 거대도시화의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사이버 문화의 발달은 가져왔지만 사람들은 기계적인 서비스보다 인간적인 접촉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시여기는 성향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로맨틱시즘이 형성되는 분위기로 발달하였다. 현대인들의 친근하고 소박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복고 열풍'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 로맨틱한 스타일로 그 모습이 드러났다. 아동기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키덜트족은 환상이나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스타일 또한 로맨틱한 감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인 패션에서 걸리쉬 패션이 형성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걸리쉬 패션의 조형적 특징은 회귀적이고 순수미의 추구, 그리고 환상적인 로맨틱시즘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회귀적 로맨틱시즘: 현대인들의 기억, 회상, 추억 속의 빛바랜 낭만이 걸리쉬 패션을 통해서 표현되었는데 그 중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는 민속의상 스타일이나 수공예 장식 등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가미되어 표현된 것을 회귀적 로맨틱시즘으로 고찰하였다. 즉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현대 여성들은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표현된 무대의상에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되었으며 그것은 스스로를 공주로 재탄생시키면서 공주풍 패션으로 발전시켰다. 이 공주풍 패션은 21세기 뉴 룩으로 불릴 만큼 걸리쉬 패션의 회귀적 로맨틱시즘으로 표현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스위트 로맨틱시즘: 걸리쉬 패션의 순수미의 조형성은 달콤한(sweet) 소녀적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과 다양한 패턴들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으로 전개되었으며 이것을 스위트 로맨틱시즘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층에게는 천사풍 패션으로 발전했고 그 스타일은 의복의 구성이나 디테일의 응용에 있어서 절제된 귀여움을 살리는 장식요소와 함께 흰색상으로 순수한 천사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천사의 비호 아래 잠시라도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대중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더욱이 세기말의 어두운 이미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순수함과 인간미 넘치는 때로는 유치하기도 한 감성이 걸리쉬 패션의 스위트 로맨틱시즘의 특성으로 전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환상적 로맨틱시즘: 시적이고 화사한 이미지의 파스텔 색상이나 눈부실 만큼 선명한 색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21세기 걸리쉬 패션은 색의 향연, 빛과 희망이라는 감성을 환상적 로맨틱시즘으로 표현되었다. 21세기에 대한 희망으로 '빛의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한 유행 컬러로써의 캔디 컬러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새 천년 패션의 메시지를 담은 걸리쉬 패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21세기 문화 코드가 되고 있는 로맨틱시즘이 걸리쉬 패션을 통해서 여과없이 직접적으로 현대인의 감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현대의 과학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 발전 양상은 그 가속을 더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그에 의해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 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새로운 로맨틱시즘 유전자를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꿈을투영하는 패션이자 21세기 로맨틱시즘의 표현인 걸리쉬 패션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유재부 (1995. 7). 세기말적 경향과 패러다임의 전환. *Fashion Today*, p. 45.
- 2) 채선미, 유영선 (1999. 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경향. *복식*, 45호, p. 56.
- 3) 안영길 외 역 (1990). *미학 예술학사전*. 미진사, pp. 368-9.
- 4) 월간미술 편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p. 68.
- 5) 안-바롱 옥성 역 (1998). Pierre Francastel, 미술과 사회. 민음사, p. 208.
- 6) Max von Bohn 저, 천미수 역 (2002). *패션의 역사*, 한길아트, p. 223.
- 7) 채선미, 유영선. *op. cit.*, p. 58.
- 8) 천미수 역. *op. cit.*, pp. 42-4.
- 9) 김미진 (1999).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p. 4.
- 10) 일간스포츠, 2002. 4. 8.
- 11) 시티라이프, 2001. 12. 21.
- 12) 연합뉴스, 시사용어사전. 2002. 5. 20.
- 13) 한국경제, 2002. 3. 3.
- 14) 주간한국, 자료검색일 2002. 9. 24, 자료출처 <http://www.hankooki.com>
- 15) 동아일보, 2002. 4. 16.
- 16) 한국경제, 2002. 3. 3.
- 17) Fashion Biz. 2001. 4. p. 242.
- 18) 패션신문 사전편집팀 (2000). *신 패션용어사전*. 주간디자인신문, p. 374.
- 19) Collection紙, 2002 S/S.
- 20) 공주병(公主病)이란 스스로가 마치 백설공주가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기 망상증으로 한국에서는 1995년에 <공주병 시리즈>라는 코미디 TV프로가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년이나 소녀들에게까지도 인기를 끌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naver 백과사전,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21) 매일경제, 2001. 11. 3.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이너 강진영이 브랜드 'Obzee'를 1993년 런칭하면서 천편일률적이던 기성복 시장에 '공주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든 옷은 파티에서나 입을 법한 드레스를 일상복과 절묘하게 결합한 실험성이 강한 옷으로 기성복이면서 파격적인 디자인과 장식으로 맞춤복과의 경계를 허물었다.
- 22) 매일경제, 2000. 8. 30.
- 23) 한국경제, 2001. 5. 3.
- 24) 한국일보, 2002. 12. 13.
- 25) 쉬어드 밍크: 털을 짧게 깎은 밍크로 밍크코트 소비자라면 연령층이 중년에서 30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의 밍크 코트에 비해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26) 공주패션. 패션토피아. 자료출처 <http://www.nefa.co.kr/hotline/issue/history/old/ba02-fr-c-071.html>
- 27) 문화일보, 2001. 11. 6.
- 28) 주간동아 322호.
- 29) 최해주, 안은경 (2003. 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2호, p. 148.
- 30) 패션신문 사전편집팀. *op. cit.*, p. 372.
- 31) 패션신문 사전편집팀. *op. cit.*, p. 389.
- 32) 동아일보 2001. 11. 28.